학부제하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

A Study on the Curricul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the School Program

한 복 희(Bock-Hee Hahn)**

목 차

1. 서론
2. 문헌정보학과와 학부제
 2. 1 학부제의 배경
 2. 2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2. 3 문헌정보학과와 학부제
3.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분석
 3. 1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 연구 분석
 3. 2 문헌정보학과 학부제 교과과정 연구 분석
4. 문헌정보학과의 학부제 실시 분석
 4. 1 전체 대학 분석
 4. 2 학부제 실시 대학 분석
5. 문헌정보학 학부제 교육과정
6.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학부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전국 32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을 조사하여 그 중에서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9개 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들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으며, 학부제실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학부제를 도입한 대학에서 새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현장의 사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과목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and analyse the current curricul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9 university, and questionnaire were sent out by mail for data collection. Current status of curricula were examined and compared. A model for a new curricular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the school program were suggested.

* 이 논문은 '97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1998년 10월 16일

1. 서 론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과 함께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항상 미래와 과거의 양쪽을 모두 다 알고서, 현재를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시켜 주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 사회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한 교육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착실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는 사회변화의 흐름을 따라 지금 산업사회로부터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사회'로 옮겨가는 새로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개혁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교육체제를 새롭게 재편하고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시키려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대학사회는 대학교육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딪쳐 최근 많은 제도적 조치들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에 걸맞은 체제로 변해야 한다는 개혁의 요구 등이 그 예이다. 교육부는 1994년 10월 28일에 대학의 학과통합 정책전환을 선언하였고, 1995년 5월 31일에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후 1996년 제2차 고등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21세기를 대비한 고등교육의 대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대학 자체의 교육체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학부제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함은 새삼 설명이 필요없는 자명한 명제다. 그러므로 교육은 두가지 즉, 사회안에서 부분적으로 잘 적응해 나가고 부분적으로는 지혜롭게 개혁해 나갈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 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천해 가고 있는지, 어떤 능력 어떤 태도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지, 가치관과 이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문제점들이 파생되는지 하는 등의 주요 물음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위에서 교육의 목적과 이상 등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유용성과 직업세계의 비전이 더욱 중요한 척도로 부각되어 있는 현실은 아마도 우리 학문의 위상제고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한국 문헌정보학이 40년이 넘는 결코 짧지 않는 역사를 지녔으면서도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자리 매김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학문의 위상 내지는 정체성이라고 볼 때, 한 연구는 '학문의 정체성 확립 실패'라는 기본적 이유에 더하여, 과학성의 부족, 규모의 영세성, 지나친 폐쇄성, 그리고 토착성 부족에서 찾고 있다(이제환, 1998, 326-7). 부산지역 모대학의 한 교수는 1학년에 재학중인 4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년 진급시 제2 전공을 선택한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비공식적인 설문 조

사를 하였다. 문헌정보학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학문의 성격이 모호하고 비전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모호한 학문의 정체성과 공급자 위주로 편성된 교과과정 및 과목편성은 문헌정보학에 대한 호감과 교과목에 대한 수요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현, 1998 : 340-341). 궁극적으로 '교육수요자가 없다'는 말은 경제적 관점에서 효용성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학과와 학문의 위기가 오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며 결국 교육내용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학부제'는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전문직이 일하고 있는 곳은 학문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학문은 쓰여지는 현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문과 현장은 전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처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학부제로 야기되는 현재의 곤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우선 우리 학문에 대한 교육수요의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엄영애 (1995 : 44)의 연구에서 1980년대에 도서관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졸업생들의 비율은 평균 39.4%였으며, 1990년대의 결과는 평균 37.4%로 2%로 하락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졸업생들 중에서 절반도 못되는 사람들만이 전문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제를 시행해야 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학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특히 교과과정의 개편에 중점을 두어 학문수요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문직 교육을 하고 있는 문헌정보학의 경우 그 교육의 목표는 당연히 전문직 사서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과는 학부제의 시행으로 자의든 타의든 간에 교과과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첫째, 이와같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으며, 학부제실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학부제를 도입한 대학에서 새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현장의 사서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조사하여 현장의 소리에 부응하는 학부제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2. 문헌정보학과와 학부제

2. 1 학부제의 배경

학부제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대학모형의 다양화·특성화라고 하는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대학정책의 밑그림이었다고 생각한다. 교개위는 다양한 "대학모형을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대학을 특성화하고, 다전공복합학문 연구가 가능하도록 최소전공인정 학점제(총이수학점의 1/4

- 1/6)를 도입"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대학모형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① 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부과정의 학생을 위해서는 특정학과에 소속되지 않고 학생이 자유롭게 폭넓은 교육을 받게 하는 대학(예: 미국 University College4)

② 사회가 요구하는 각 분야의 관리자를 위하여 몇 개의 학문분야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전공케하는 대학(예: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PPE〈Philosophy, Politics & Economics〉 등)

③ 특정분야 전문가 양성(건축학 등)에 필요한 전문교육에 치중하는 대학

④ 음악과 미술, 연주, 비평 등의 예술교육에 있어서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⑤ 산업현장에 종사할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⑥ 학생은 학부 또는 학과에 소속되어 있으나 전공이수학점을 총이수학점의 1/4 - 1/6수준으로 최소화하여, 학생이 원한다면 다전공·복합학문 연구가 가능한 대학

학부제가 대학개혁의 중심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가 "유사학과와의 통폐합",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확대"로 좁게 이해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된 후 많은 수의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시기와 방법을 더욱 다양화하고, 모집단위를 광역화하며, 연계·통합 전공과정을 개발하는 등, 대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도 다음 세가지는 앞으로의 개혁을 위하여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개혁활동들을 관통하여 이들을 의미있게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 혹은 밑그림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혁에 사용하는 기본개념이 불명료하고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셋째는 문서상의 개혁, 구호만의 개혁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대학교육개혁 심포지엄, 1998)

2. 2 현행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현행 교육과정은 1991학년도에 마련된 기준으로 이후의 학문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1996에 이어 1998.3.1자로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어 '99학년도부터는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단위로 학생을 모집함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학부제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에 따라 학생이 2이상의 전공, 연계전공 및 복합전공 등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수요자(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2) 교수의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3) 최소전공인정기준 설정 및 복수전공의 기회 확대로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 (필수과목 지정범위 최소화)
4) 부전공은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5) 연계전공 및 복합전공제 도입
6) 전공과정 운영목표를 연구중심교육과 취업증진을 위한 교육중심교육으로 이원화하여 교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되 교육중심교과목을 사회 및 산업 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
7)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을 실천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봉사활동 교육과정 운영방안 검토(98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대학교육개혁 심포지엄, 1998)

2. 3 문헌정보학과와 학부제

1995년과 1996년의 두 차례에 걸친 고등교육개혁안으로 인하여 각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체제를 바꾸게 되었고 이 변화에 따라서 1996년 입학생부터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의 문헌정보학과에서 학부제를 시행하였다. 이들 대학을 필두로 1998년 10월 현재 전국 32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학부제 체제에 돌입하고 있으며, 1999년도부터는 16개 대학이 더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학부제의 특성은 복수전공제, 최소학점인정제, 대학원연계과목제도 및 대학원중심교육 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21세기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으로서 학부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대학은 학습하는 공동체(learning community)로 과거의 상아탑적 대학상은 많이 퇴색한 반면에, 대학교육의 이상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기능적 인간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확실히 학과중심체제 보다는 학부체제가 이러한 대학교육목표에 접근하는 이상적인 체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구본영, 1996 : 26)

구본영(1996)의 연구에 의하면 학부제를 도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장점으로 다전공 및 복수 전공제의 가능(22%), 폭넓은 전공교육 기회 확대(13%)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미래의 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복수전공과 폭넓은 전공교육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학부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때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함(57%), 다전공선택(25%)의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부제 도입이 전적으로 수요자(학생)의 입장에서 찬성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당면과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실용적인 정보전문가를 기르기 위해서는 실습과 이론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과운영(29%), 전산교육과 문헌정보학의 연계(22%), 현행 교육과정을 타학문 접근(22%) 및 타학문(인문, 사회, 자연과학)과의 연계(15%), 어학능력제고(13%)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문헌정보학과에서 학부제를 도입하였을 경우 현재의 교육과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는 1996년에 "학부제 실시와 문헌정보학의 진로",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헌정보학 교육의 제 문제" 등의 학부제관련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에 학부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분석

교과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재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계통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의 전체로서, 교육의 내용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선정, 조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대학의 교과과정은 그 대학의 건학정신과 시설 및 교수진의 구성이라는 제한조건 아래 편성되므로 전문교육의 경우 교육내용이 해당분야에 어떻게 활용되고 해당분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정진식, 1991 : 5)고 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1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연구 분석

1995년, 1996년의 제1차, 제2차 고등교육개혁안으로 인하여 대학 자체의 교육체제 변화에 따라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에서 학부제를 시행하였고 1998. 10월 현재 전국에서 9개 대학이 학부제 체제에 돌입하고 있으며, 1996년도부터는 16개 대학이 더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부제 시행전까지 이루어진 교과과정 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대상으로 그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과 제안 사항들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학회의 차원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1979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도서관학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수원 말씀의 집에서 주최한 도서관학교과과정 개혁을 위한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에서 피터 하버드 윌리암즈 교수가 '내일의 정보·도서관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강연에서 1974년에 유네스코의 한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기본교과과정표를 수정하여 그것을 1975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도서관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4개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도서관학개론 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정필모 교수, 참고봉사 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노옥순 교수, 서지과목의 내용에 대하여 윤병태 교수, 마지막으로 정보학과목의 내용에 관한 사공 철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도서관학과의 학부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정보학 교과목으로서 다섯 개의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보과학개론, 전자계산기개론, 도서관 자동화, 정보검색론, 정보시스템 분석·설계 등이었다.(도서관학교과과정 개혁을 위한 세미나 진행기록, 1979 : 30-32)

권기원(1978)은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제도에 대한 고찰'에서 우리나라에 도서관학이 대학의 과정에 도입된 1957년 요람기에서 1978년 전성기까지 약 20여년간 도서관학 분야는 급진적인 발전을 했으며 현재 초급대

학·전문학교가 5개교, 대학이 9개교, 대학원이 5개교, 대학원박사과정이 1개교가 되었고, 도서관학교육은 초기의 실무 위주교육에서 이론 및 정보학영역과 어학영역이 크게 늘어난 교육과정으로 도서관학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성진(1985) 등은 한국적 도서관학교육과정 연구에서 우리나라 도서관학 교육에 있어서의 모든 기존 관념을 떠나서 철저하게 현장의 요구를 밝히고 그것을 교육의 성취 목표로 삼는 교육과정의 편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로 얻어진 결론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관학 교육이 도서관 현장의 요구에 기초하여 계획되고 실천되려면 요구가 집중된 분야 중에서 필수과목이 지정되고 또 이 분야들에는 더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서들에 의하여 표시된 이론분야들에 대한 교육적 요구의 수준은 비교적 낮다는 사실에 비추어 도서관학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의 이론위주 교육관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서들의 교육적 요구가 현저하게 집중되는 분야의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그렇지 못한 분야의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선택과목 중에서도 현장의 교육적 요구가 높은 분야는 과목 수나 학점 수를 늘려서 넓게 혹은 깊게 다루고 교육적 요구가 낮은 분야는 관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분야 내용을 통합한 교과목을 만들거나 학점 수를 줄이고 또 격년제 개설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도서관학 각 분야의 교과내용에는 사서들의 요구가 현저하게 집중된 영역들을 추려서 일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밖의 영역들은 대학의 실정과 판단에 따라 일부 또는 모두를 포함시키고 요구의 집중 순위를 참작하여 수업계획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진식(1991)은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분석과 모형개발 연구에서 전국 30개 대학 문헌정보(도서관)학과의 최근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검토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한성대학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개발모형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교과과정 명칭은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는 각 과목명에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과목명을 통합명칭(가칭)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과정 개발모형(안)은 ①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면 선택으로 개편하였으며, ② 개설교과목의 강의수를 대폭 증설하고, ③ 부전공과 복수전공제도를 이해시켜 활성화하는 것이며, ④ 동일계열간 동일학과 또는 인접학과간의 상호 학점교류제도를 확립하자는 것이었다.

이종수(1994)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과정별 교과과정 비교연구를 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현행 교과과정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지속적인 교과과정의 개발과 어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남태우(1995) 등은 정보사회를 대비한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 내용을 크게 ① 정보의 문화론적 이

해, ② 정보의 사회학적 접근, ③ 정보의 경영론적 이해, ④ 정보의 구조론적 분석, ⑤ 정보기술과 정보환경으로 나누고 있다.

엄영애(1995)는 문헌정보학과 교육의 변화 연구에서 문헌정보학교육이 가르쳐야 할 내용은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본질적인 기능인 기록자료와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집, 조직, 축적, 배포, 이용시키느냐를 근거로 해서 균형 잡힌 이론과 실습의 기회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기간 동안 사서직의 사명과 직업의식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3. 2 지금까지 연구된 문헌정보학과 학부제 교과과정 분석

구본영(1996)은 한국문헌정보학을 학과중심제도에서 학부제로 전환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장점, 단점, 예상되는 문제점, 당면과제 등을 연구하여, 학부제 실시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 교수 139명에게 학부제 모형을 제시하고 설문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한 교수의 44%가 학과중심학부제를 찬성하고 있었으며 문헌정보학과의 학부제로의 전환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문헌정보학과 학부제의 교과과정은 문헌정보학과의 특성을 살펴 가면서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특성적인 방향으로 교육내용이 짜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김정근(1997) 등은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연구에서 현단계에서 한국문헌정보학이 각종 사회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현재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문헌정보학전공이 학부제 시행과정에서 대학간에 각기 다른 형태로 재편된 사실은 향후 학문성의 성립에 있어 많은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명옥(1997)은 「문헌정보학의 교육방향에 관한 고찰」에서 교육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전문직 교육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서직 윤리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4) 정보기술의 이해와 활용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5) 국제적 시각을 배상하여야 하며,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6) 의사소통의 대두와 중요성에 유념하여야 한다.
(7) 사례연구, 현장견학 등의 교육방법을 지향하여야 한다.
(8) 실무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9) 문헌정보학 각 영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전공 필수와 선 택의 채택이 바람직하다.
(10) 학제간 연구방법을 지향하여야 한다.
(11) 계속교육, 생애학습으로서의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제환(1998)은 여러 각도에서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과 그 처방에 따른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4가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안으로 ① 학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 ② 학계와 현장의 명실상부한 협력을 위해 '산학협동' 전략의 필요성, ③ 교육수요의 창출을 위한 '마케팅 철학과 전략'의 필요성, ④ 학계와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場)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수요의 창출과 관련하여 개혁의 기본방향은 학부의 교육내용과 대학원의 교육내용을 이원화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학부과정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은 대학원에서 교육하는 교육내용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과과정의 개편과 관련하여 교과목의 편성과 과목명칭의 개정 그리고 필수전공과목들은 학계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교과목의 명칭은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성수(1998)는 학부제 관련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 연구를 통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의 측면에서 학부제를 분석하고, 한국문헌정보학 교육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의거하여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헌정보학 교육의 영역을 구분한 다음, 각 영역별 고과과정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을 ① 정보조직, ② 참고·서지정보 서비스, ③ 도서관·정보센터경영, ④ 정보학, ⑤ 문헌정보학 일반이라는 5대 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별로 개설되는 교과목들을 정리 분석하였다. 학부제의 상황하에서는 전공필수과목을 철폐하고 전공선택과목을 대폭 확장하여야 하며, 각 교과목의 명칭은 미래지향적으로 개명되어야 하며, 문헌정보학의 철학적 기반 및 이상(理想)과 관련하여 교과과정의 내용에 이론화·체계화를 보다 심화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수상(1998)은 독립성을 가지는 학문이라면 다른 학문들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탐구영역, 이론체계와 연구방법을 가져야 하고, 한국 문헌정보학의 가장 중요한 탐구영역은 도서관 현상이며, 문헌정보학의 기본적 패러다임은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라고 하였다. 한국문헌정보학의 패러다임은 서비스이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도서관 현장의 현실적 패러다임이 행정이라는 것은 미국 이론을 도입하는 데 있어 토착화문제를 제기하게 된다고 하면서, 한국문헌정보학의 주류 파라다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로 보았다. 그것은 연구주제 분야의 산발성, 성급한 '정보학적 요소', 편향된 연구방법, 외국지향적 연구태도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Walt Crawford 와 Michael Gorman(1995)은 미래도서관은 기술지향의 전자도서관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유형의 자료를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성공한 도서관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래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첫째, 미래는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커뮤니케이션이 공존한다. 둘째, 미래는 일차원적인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가 공존한다. 셋째, 미래는 사서에 의한 중개와 직접 접근이 공존한다. 넷째, 미래는 소장과 접근이 공존한다. 다섯째, 미래는 공

간으로서의 도서관과 인터페이스로서의 도서관이 공존한다.

4. 문헌정보학과의 학부제 실시 분석

본장에서는 전국의 32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에 학부제 실시와 관련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받은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9개 대학의 학부제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4. 1 전체 대학 분석

1) 학부제 시행여부
   - 〈표 1〉
2) 학부제 시행 연도 및 예정 연도
   - 〈표 2〉
3) 학부제 실시전의 소속 대학
   - 〈표 3〉
4) 학부제 실시 후 소속대학 변경 여부
   - 〈표 4〉
5) 소속 계열이 변경된 대학들의 변경현황(합친 학과 명)

〈표 1〉 학부제 시행 여부

학부제 시행여부	응답 학교 수	비율(%)
시행하고 있다	9	28
시행하고 있지 않다	23	72
계	32	100

〈표 2〉 학부제 시행 연도

년도	응답 학교 수	비율(%)
1996	3	9.375
1997	3	9.375
1998	3	9.375
1999	16	50.000
기타	3	9.375
체크안함	4	12.500
계	32	100.000

〈표 3〉 학부제 실시전 소속 대학

대학	응답 학교 수	비율(%)
인문대학	17	53.1
사회대학	9	28.2
인문사회대학	1	3.1
체크안함	5	15.6
계	32	100.0

〈표 4〉 학부제 실시와 소속 대학

내용	응답 학교 수	비율(%)
변경없음	16	50.0
변경 됨	7	21.9
체크 안함	8	25.0
단 독	1	3.1
계	32	100.0

• 덕성 여대
사회과학대학 ⇒ 인문사회과학부
• 동의대
인문과학대학 ⇒ 문헌언론 정보학부(가칭, 신문방송)
• 신라대
인문과학대학 ⇒ 정보과학군(지리정보)
• 서울여대
사회과학대학 ⇒ 경상정보학부(경영, 경제, 신문방송)
• 숙명여대
인문과학대학 ⇒ 정보과학부(자연계열, 컴퓨터)
•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 ⇒ 사회과학대학(정외,행정,경제,신문방송,사회복 지,심리)
• 전주대
인문과학대학 ⇒ 사회과학

6) 학부제 실시 후 학생들이 많이 택하는 과목

학부제 실시 후 학생들이 많이 택하는 교과목으로는 도서관 자동화, 인터넷 정보검색, 온라인 탐색, 문헌정보학 개론, 문헌정보학의 이해, 인터넷 응용, 정보관리의 이해 등으로 나타나 정보학과목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2 학부제 실시 대학 분석

4. 2. 1 학부제 실시대학 분석 총괄
- 〈표 5〉

4. 2. 2 각 대학 분석

1) 경기대
① 구분 : 학부 공통·전공 이론 및 실습 과목으로 나뉨
• 졸업 최저 이수 학점 : 140학점
• 교양 최저 이수 학점 : 36학점
• 전공 최저 이수 학점
- 복수전공 : 35학점,
- 단일전공 : 47학점
② 과목 분석
전 학부 동일교과목으로 인터넷 응용,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론, 정보 시스템관리론, 컴퓨터네트워크 등이 개설되었다. - 〈표 6〉

2) 계명대
① 구분 : 전공기본과목·전공심화과목
② 과목 분석 - 〈표 7〉

〈표 5〉 학부제 실시대학분석총괄

구분 / 대학별	학부제 시행 연도	소속분야	학부제이후 계열변경	전공기초/전필 전선구분 여부	전공제도	졸업 이수 학점	전공 이수 학점
경기대	97	인문과학	없음	학부공통/전공 이론 및 실습	복수전공 자유	140	35(47)
계명대	97	사회과학	없음	전공기본과목/전공 심화 (필수지정)	복수전공 자유	140	36(69)
덕성여대	97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부 도서관학전공	필수/선택 → 전선/전필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120	30
동덕여대	98	사회과학	없음	전필/전선	단일학과	130	35
서울여대	98	사회과학	→경상정보학부 (+경영학과,경제학과,신문방송학과)	전선/전필	복수전공 자유	140	36
성균관대	96	인문과학	없음	기본교양/전공선택. 전공과목은 모두 선택	복수전공 자유	130	39
숙명여대	98	인문과학	→자연계열 정보과학부	모두 전선(학부공통 기초,핵심,심화)	복수전공 자유	140	36
연세대	96	인문과학	없음	전공기초/일반전공/ 심화전공	이중다중 전공가능	140	36
이화여대	96	인문과학	→사회과학대학 사회계열(+정치외교학과,행정학과,경제학과,신문방송학과,사회학과,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모두 전선 (전공기초/전공 선택)	복수전공 자유	140	36

※ 전공 이수학점 중 ( )안의 숫자는 단일 전공시 이수학점임

〈표 6〉 경기대학교 교과목 분석

학년	없어진 과목	신규과목
1	정보학개론	도서관 정보활용법
2	일본자료 산업정보시스템	정보이용자론 인터넷 응용
3	자료조직 실습	데이터 베이스
4	도서 및 인쇄사 한국서지 영서강독 색인 및 초록론 문헌정보학 특강	정보처리론 컴퓨터 네트워크

3) 덕성여대

① 구분

② 과목 분석 - 〈표 8〉

③ 특징

구분	필수	선택	⇒	전필	전선으로
과목수	8	16	⇒	3	15

ㄱ. 거의 모든 교과목 명칭이 바뀜

ㄴ. 정보검색이 인터넷 정보검색과 온라인 정보검색으로 나뉨

4) 동덕여대

① 구분

• 전공기초/전공필수/전공선택

② 과목 분석 - 〈표 9〉

5) 서울여대

① 구분

• 학부공통과목/전필/전선

② 교과목 분석 - 〈표 10〉

③ 교직 필수, 부전공 필수 과목을 선정함

〈표 7〉 계명대학교 교과목 분석

학년	없어진 과목	학부제 이후 신규과목
2	프로그래밍 한서강독 일서강독	정보와 컴퓨터
3		정보매체론
4	자료조직론 문헌정보학 특강	정부간행물 연속간행물 계량정보학 학술커뮤니케이션 이론 도서관 평가론
비 고	전공기본과목에서 필수과목 지정하고 자료분류론, 자료편목론, 정보학원론, 정보봉사론, 데이터베이스 전공심화과목 예시함	

〈표 8〉 덕성여대 교과목 분석

학년	없어진 과목	신규 과목	비 고
2	자동화 입문 영서 강독 사회와 도서관	문헌정보 처리론	
3	서지학 개론 비도서자료 정보검색	특수자료 조직론 멀티미디어론 온라인정보검색론	정보검색은 인터넷 정보검색과 온라인정보검색으로 나뉨
4	논문 도서관 통계학 재정 및 인사관리 인문·사회과학서지 고급분류·목록학 한적 및 조직집 자연과학서지	관중별도서관경영론 주제서지론	주제서지론은 인문·사회과학 서지와 자연과학 서지를 묶은 것임

〈표 9〉 동덕여대 교과목 분석

학년	없어진 과목	신규과목	비 고
1	도서관경영론 영서 강독 Ⅰ · Ⅱ 한서 강독 Ⅰ · Ⅱ 중국 서지 일본자료 독서지도론 문서 관리 정보학특강 컴퓨터 정보처리법Ⅱ 시청각 자료	정보문헌선독 데이터베이스 설계 온라인 정보검색 문헌정보학 특강 웹기반 정보처리 정보화매체	강독의 축소 과목변경

〈표 10〉 서울여대 교과목 분석

학년	없어진 과목	신규 과목	비 고
2	독서지도		
3		정보와 매체	
4	정보학 연구방법론 졸업논문	온라인DB탐색실습	자연과학정보원이 과학기술DB 평가로 변경

〈표 11〉 성균관대 교과목 분석

학년	없어진 과목	신규 과목	비 고
1		정보사회론(2) 온라인 탐색(3)	전공에서 기본교양으로 변경됨
2	정보학개론 일본자료 Ⅰ 일본자료 Ⅱ 자료선택론	문헌정보학개론 출판과 저작권 장서구성론	자료선택론('96)이 장서구성론으로
3-4		뉴미디어 문서관리 문헌보존법	운영론 → 경영으로 고전자료조직법 → 고문헌 조직법 자연과학서지→과학 기술정보 정보봉사론,참고봉사론 →참고정보봉사론 비도서 자료 조직법 →특자료조직법 인문 · 사회과학서지 →인문과학정보,사회 과학정보

6) 성균관대

① 구분

- 기본교양/전공선택으로 나눔
- 전공과목은 필수 없이 모두 선택임

② 과목분석('98 교육과정 기준)

-〈표 11〉

7) 숙명여대

① 구분

- 학부공통과목 필수, 심화, 전공 등 구분없음

〈표 12〉 숙명여대 교과목 분석

학년	없어진 과목	신규 과목	비 고
1학년	참고봉사론 서지학 개론	이산구조 온라인정보검색연습 어셈블리어	
2학년		정보네트워크론	도서관사 → 정보센터,도서관사 분류,목록→ 정보조직론 Ⅰ,Ⅱ
3학년	시스템 분석론		정보처리 연습 → 정보처리 기초 자료구성론 → 정보자원개발론 도서 및 인쇄사 → 문헌의 역사와문화

〈표 13〉 연세대학교 교과목 분석

학년	없어진 과목	신규과목	과목변경 · 학년변경
1	프로그래밍 기초('96)		2학년 정보기술론이 내려옴
2			
3	서지데이터베이스론		텍스트처리론(→4학년으로) 지식구조론(4→3학년으로)
4	정보시스템분석 정보검색기법론	문헌정보통계 온라인정보검색연습	

〈표 14〉 이화여대 교과목 분석

학년	없어진 과목	신규과목	비고
1	문헌정보학원론	정보매체론	
2	비도서자료 공간행물 아동/청소년자료 서지학사 뉴미디어론	도서관 · 정보센터 경영	도서관경영 미디어센터 공공/학교도서관 대학/전문도서관 →한 과목으로 대체

② 과목분석 - 〈표 12〉

8) 연세대 ('98, '99 분석)

① 구분

- 전공기초/일반전공/심화전공으로 나눔
- 일반전공과 심화전공은 모두 선택임

② 과목분석 - 〈표 13〉

9) 이화여대

① 구분

- 모두 전선(전공 기초/전공선택)

② 과목분석 - 〈표 14〉

③ 특징 : 도서관경영과목 축소

4. 3 학부제 이후 교과목 변동의 추이

4. 3. 1 9개 대학의 학부제 이후 교과목의 변동 추이

학부제 이후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변동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5〉는 9개 대학의 교과목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된 9개 대학에서 학부제 이전에 개설된 과목 276개 과목 중에서 없어진 교과목은 58개 과목으로 그 비율은 21%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제 이후 신설된 과목 수는 254개 교과목 중 39개 교과목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15.4%에 달하고 있다. 〈표 15〉에 의하면 신설된 교과목수의 비율보다 없어진 교과목 수의 비율이 6.4%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3. 2 없어진 교과목과 신설된 교과목의 비교 분석

9개 대학의 학부제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의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없어진 교과목과 신설된 교과목을 알아보았다. 실제로 학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본 조사에 의하면 9개 대학에서 58개의 교과목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 평균 6.4과목이 폐지되었으며, 39개의 과목이 신설되어 평균 4.3과목이 추가되고 있다. 없어진 교과목들의 특징은 다음 과목명들을 통해 알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대학에서 없어진 과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의 숫자는 대학교의 수를 나타낸다. 없어진 교과목들은 일본자료(5), 영서강독(4) 비도서자료(3) 한서강독(3) 자료조직(3) 문서관리(2) 독서지도(2) 서지학 개론(2) 정보학 개론(2) 졸업논문(2) 프로그래밍(2) 시스템 분석(2) 문헌정보학 특강(2) 등이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에서 19개 과목이 없어졌다. 없어진 과목들은 공간행물, 뉴미디어, 도서관경영론, 도서관통계학, 도서 및 인쇄사, 문서 관리, 문헌정보학원론, 사회와 도서관, 산업정보시스템, 색인 및 초록론, 서지데이터베이스론, 아동/청소년 자료, 자동화 입문, 자료선택론, 자연과학 서지, 재정 및 인사관리, 정보학 연구방법론, 정보학 특강, 참고 봉사론 등이다.

신설된 과목들을 살펴보면 정보매체론(5) 문서관리(2) 정보처리론(2) 온라인 정보검색(5) 인터넷 정보검색(2) 컴퓨터 네트워크(2)등이다. 또한 21개 과목이 신설되었다. 즉 계량정보학, 관중별 도서관 경영론, 데이

〈표 15〉 학부제 이후 교과목 변동의 추이

항목 / 대학	학부제 이전 개설과목수 (없어진 과목)	비율(%)	학부제 이후 개설과목수 (신설과목)	비율(%)
경기대	32 (10)	31.2	28 (6)	21.0
계명대	32 (5)	15.6	34 (7)	20.6
덕성여대	24 (13)	54.0	29 (5)	38.9
동덕여대	35 (10)	28.5	29 (5)	17.2
서울여대	22 (3)	13.6	21 (2)	9.0
성균관대	34 (4)	11.8	36 (5)	13.9
숙명여대	25 (3)	12.0	26 (4)	15.4
연세대	38 (4)	10.5	36 (2)	5.5
이화여대	34 (6)	17.6	26 (1)	3.8
계	276 (58)	21.0	254 (39)	15.4

터 베이스, 데이터 베이스 설계, 도서관·정보센터 경영, 도서관 정보활용법, 도서관 평가론, 문헌정보통계,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특강, 어셈블리어, 연속간행물, 이산구조, 정보문헌선독, 정보와 컴퓨터, 정보이용자론, 정부간행물, 주제서지론, 출판과 저작권, 특수자료조직론, 학술커뮤니케이션론 등이다.

없어진 과목의 경우는 대개 개설되어 있던 상태에서 빠진 과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설된 과목의 경우는 이미 9개 대학 중 다른 대학에서는 개설되고 있는 과목들을 또 다른 대학에서 개설한 경우와 새로 신설된 경우로 볼 수 있다.

5. 현장 사서들의 응답결과 비교

5. 1 개요

본 장에서는 학부제와 관련하여 몇몇 교수들과 논의한 내용과 현장의 사서들과의 면접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서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학부제에서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대전 및 충남지역 8개 공공도서관에서 72부, 10개 대학도서관에서 110부, 18개 연구소도서관에서 57부를 회수하여 이들이 응답한 교과목과 9개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비교하였다.

S. Jespersen은 정보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새로운 요구를 받아드려 그들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훈련과정은 3단계의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하였다(Jespersen, 1993, 48). ① 1단계 직업교육, 학부과정이나 또는 다른 학부전공후의 대학원 과정 ② 계속교육, ③ 직무교육(on-the-job training) 등이다. 계속교육과 훈련활동은 학술회의, 세미나, 전문학회, 단기과정, 워크샵, 특강과 내부 직무교육과 같은 공식적인 훈련활동을 포함한다.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는 영국의 도서관학교들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한 예로서 10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문헌정보학과의 교수진이 문헌정보학전공자 외에도 전자계산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신문방송학과 등 다른 학과의 교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과과정에 있어서도 적절한 정보기술의 응용을 통해서 모기관의 내적 외적 정보원의 효과적인 조직에 관한 것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란 중요한 경제적인 정보원이며, 정보기술은 자료의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정의되고 있다.

Robert Davies는 넓은 의미에서 미래의 정보전문직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정보전문직은 정보기술자로서 이용자에게 접근하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즉 정보를 제공하고 충고와 훈련을 제공하고 시설을 알려주고 이용자의 편에서 특정정보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웹 마스터로서 네트워크 이용 기술과 같은 정보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이용자와 하나가 되어 정보를 수집, 정리, 기술, 관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전문가는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영역을 정확히 알고 조직내에서

방법과 처지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재정 전략을 세워야 하며 동반자 정신을 갖어야 한다.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 지위는 얻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훈련을 받는다. 예견되는 미래의 정보전문직은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Davies, 1996, 217-220) 등이다.

이상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현장사서들의 응답결과와 비교 할 때 정보기술 습득에 필요한 교과과정 개설과 실무와 직결된 강의 요구 등 많은 일치점이 발견되고 있다.

5. 2 학부제 실시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개설 과목의 빈도수

〈표 16〉은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9개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들과 현장의 사서들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교과목들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문헌정보학입문, 분류, 목록, 장서구성론, 정보검색 등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과목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의 응답결과들은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관종에 따라 약간

〈표16〉 문헌정보학과 개설과목과 사서들의 응답과목 비교

9개 대학 문헌정보학과 개설과목	사서들의 응답 과목
〈9개대학 개설〉 정보처리연습 장서구성론 정보조직론 : 목록 정보조직론 : 분류 정보조직연습 〈8개대학 개설〉 과학기술정보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정보검색론 정보시스템구축론 정보조사제공론 문헌정보학입문 〈7개대학 개설〉 뉴미디어 사회과학정보 인문과학정보 학술정보네트워크기초 〈6개대학 개설〉 데이타베이스시스템 서지학개론 아동자료이용론 특수자료조직론	문헌정보학입문 정보조직론 : 분류 정보검색론 정보조직론 : 목록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온라인정보검색연습 정보시스템구축론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장서구성론 학술정보네트워크기초 서지학개론 색인 및 시소러스 정보처리연습 뉴미디어 정보이용자론 정보조사제공론 정보표준화론 전문정보센터경영론 정부자료론 특수자료조직론

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6. 문헌정보학 학부제 교육과정

6. 1 개요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조사된 자료와 5장에서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문헌정보학과 학부제 교과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9개 대학 중 1996년도에 3개 대학, 1997년도에 3개 대학, 그리고 1998년도에 3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의 학부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9개 대학 중 5개 대학들이 인문대학에 속해 있고, 4개 대학은 사회대학에 속해 있다.

교과과정의 전공선택과 필수의 지정여부에서는 5개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모두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4개 대학은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교과목의 개설과 관련하여 각 대학들은 2개 대학에서 학부공통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전공기초과목, 핵심전공과목, 심화전공과목 등으로 나누고 있다. 전공제도는 1개 대학의 경우 단일학과로 남아 있어 학부제 시행전과 동일하며, 8개 대학은 복수 전공제를 택하고 있다.

졸업이수학점은 6개 대학이 140학점을, 2개 대학이 130학점을, 그리고 1개 대학에서 120학점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공이수학점은 5개 대학에서 36학점을, 2개 대학에서 35학점을, 그리고 2개 대학에서 각각 30학점과 39학점을 이수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새로운 기술습득과 실습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문헌정보학분야의 핵심과목에 대한 연구와 강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으로서 사서직의 입지를 넓히는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과 학생들에게 문헌정보학분야의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적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교과목 명칭의 개정, 그리고 명칭에 걸맞는 참신한 교수의 강의와 교수법의 개발 등을 들고 있다. 현장학습위주의 강의와 모든 과목을 교양화 시키는 문제, 교과목 명칭을 일반적인 명칭으로 바꾸는 문제, 학과의 운명이 교수에 달려있으며 교수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교수도 있었다.

현장의 사서들에게 지금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는 예비 신입사원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할 업무내용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그 내용들로서 정보검색, 컴퓨터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 도서관업무에 관한 기본능력, 온라인검색 능력,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등을 들고 있다.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컴퓨터 능력과 어학능력을 많이 언급하였으며, 사서고시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적극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사서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에 대인관계 등 개인소양, 그 다음에 전산능력이라고 한 사서도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고유영역으로서 전공자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전문영역의 설정과,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서도 있었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지금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만나고 일하는 새로운 장소와 환경을

창조해 내고 있다. 이와같은 새로운 환경들이 이미 연구실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형식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전문직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완성되어가는 정보사회는 궁극적으로 정보전문직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자도서관시대, 연구기관, 자연어 탐색, 전자초록을 포함하여 이 모든 일은 이루어 질 것인가? 이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전문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들은 정보기술의 발전의 결과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전문직들은 직업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Elspeth, Hyams는 정보전문직이 도전에 부딪치는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① 지난 10년간 특징이 된 White-color 직업의 개편과 ② 이 나라의 정치가와 지도자들의 편에서 비전과 이메지네이션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정보전문직은 어떤 새로운 산업기지를 창조해 내기 위해 존재하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Hyams, 1996, 204).

정보시대의 새로운 이미지에 맞게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미지컨설턴트가 필요하다. Margaret, Kinnell은 정보전문직의 역할은 모두 매니저로서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로 잘 정리된 가방이 필요하다(Kinnell, 1996, 209). 본 장은 우리가 배출하는 사서들에게 이러한 가방을 꾸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위해 정리되었다.

학부제를 시행하게 될 때에 염려되는 문제로서 이수하는 교과목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에 따른 사서직의 질적 저하 내지는 전문성 약화를 들 수 있다. 최소 전공 인정 학점이 36학점인 상황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12과목 정도를 수강하고 졸업하게 된다. 이것은 학부제 이전과 비교하여 약 50%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설강되는 전체 과목 수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학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본 조사에 의하면 9개 대학에서 58개의 교과목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 평균 6.4과목이 폐지되었으며, 39개의 과목이 신설되어 평균 4.3과목이 추가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 학부제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공통적으로 협동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문헌정보학 학부과정을 마치고 사서직에 입문함에 있어 필요한 과목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각 과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느정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조사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덕성여대에서는 '도서관통계학'이 없어졌으나 연세대에서는 '문헌정보통계'가 신설되었다. 동덕여대에서는 '정보와 사회'가 없어졌으나 성균관대에서는 '정보사회론'이 신설되었으며, 이화여대에서는 '뉴미디어론'이 없어졌으나 성

균관대에서는 '뉴미디어' 과목이 신설되었고, 덕성여대에서는 '영서강독' 이 없어졌으나 동덕여대에서는 '정보문헌선독' 이 신설되었다.

전체적인 교과과정과 더불어 연구되어야 할 것은 각론으로 각 교과목에 대하여 내용, 교수법, 범위 등이 정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각 교과목의 내용은 자체로서 완전해야 할 것이며,. 타 과목과의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제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 중 특히 실습부족으로 인한 현장성과의 연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서직에 입문한 후에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부족한 혹은 필요한 전공지식의 교육은 계속교육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계속교육은 종래의 일회적·단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이어야 힌다. 주제나 과목에 따라서는 대학교육과 같은 수준의 집중적인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속교육에는 문헌정보학과와 현직교수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2 문헌정보학 학부제 교육과정 모형

지금까지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9개 대학의 교과과정과 면담자료, 설문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학부제 교육과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에 기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교과과정을 작성해 보았다.

① 문헌정보학의 교육목표와 관련된 기본영역에 대한 교육
② 전공필수 과목보다는 전공선택 과목 확대
③ 각 교과목의 명칭은 미래지향적으로 통일
④ 문헌정보학 기본과목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체계적인 수업
⑤ 정보기술의 이해와 활용능력 키우는 교육과정
⑥ 실습부족과 현장성과의 연계문제
⑦ 관심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점진적인 교과목의 단계적 개발
⑧ 계속교육으로 보완되는 교육과정
⑨ 정보기술로 인한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삼는 교육과정
⑩ 매력있는 교과목의 개설과 그 내용의 중요성
⑪ 교육제공자인 교수 개개인의 변화와 혁신

〈그림 1〉에 의하면 학부제의 문헌정보학과는 전체적인 구도로서 그 주제 영역을 크게 5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개설해야 할 과목에 별표를 하였으며, 별 표시를 한 교과목아래 ( )안의 교과목은 전개과목으로서 학교에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30개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전개교과목으로서 17개 과목을 추가하였다. 점진적 교육과정으로 체계적인 수업을 위하여 전공기초, 일반전공, 심화전공으로 나누었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전공기초과목과 일반전공과목 중에서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 따라 영역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문헌정보학 일반과 자료조직을 합칠 수도 있으며, ( )안의 전개과목을 활용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료조직이 강한 학교의 경우, 분류 한 과

전공구분		전공기초	일반전공	심화전공	계
과목수		8(2)	11(7)	11(8)	30(17)
전공영역	문헌정보학일반	*문헌정보학입문 *정보와사회 *도서관문화사 *서지학개론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문헌정보학특강 (정보학특강) (서지학특강) (한국서지) *졸업논문	7(3)
	자료조직		* 분류 * 목록 (정보조직론:분류I,II) (정보조직론:목록I,II)	*자료조직연습 (자료조직연습 I,II) *특수자료조직 (기록보존자료)	4(4)
	경영관리	*관종별도서관경영론	*공공도서관경영론 *학술미디아센터경영론 *학술정보센타경영론 (대학도서관경영론)	*현장실습	5(1)
	정보조사제공	*정보의탐색과이용연구 (정보이용자론) *정보자료구성론	*정보봉사론 (참고자료론) (독서지도론)	*인문·사회과학정보 *과학기술정보 (정보정책론)	5(4)
	정보시스템	*도서관자동화 (도서관전산개론)	*정보검색론 *온라인정보검색 (인터넷정보검색) *정보시스템 *DB시스템 (프로그래밍언어)	*정보기술론 *학술정보네트워크기초 (네트워크시스템관리) *정보처리연습 *컴퓨터정보처리 (웹기반정보처리)	9(5)

〈그림 1〉 학부제 교과과정표

목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 I, 분류 II로 개설할 수 있다. 목록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또한 경영관리영역에서 학술정보센터경영론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정보조사제공영역안에 이용자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보의 탐색과 이용연구를 도입하였다.

대개의 경우 문헌정보학의 한 영역으로 정보학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학보다는 정보시스템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정보시스템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문헌정보학 교육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영역의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시스템 영역에서도 정보검색을 강화하고 싶으면 정보검색론, 온라인정보검색, 인터넷정보검색 등의 3개 과목을 모두 개설하여 일반전공 내에서도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점진적인 교과과정을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교육에 있어 전공영역간의 균형을 맞추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정보전문직의 양성이라는 대 전제를 생각해 본다면, 학교별 특성에 맞게 교과목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제시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영역이나 과목의 그럴듯한 나열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해 심도있게

잘 짜여진 내용으로 실습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은 현대자료이든지 고전자료이든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집, 조직, 이용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이모든 내용이 균형을 이루면서 교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한 교과목 아래에서 많은 내용을 담아서 가르쳐야 할 지도 모르는 이때에, 강의실에서 교수 개개인과 학생간의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 그리고 교수의 열의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교과목별로 어느정도 표준화된 교과내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우 문헌정보학과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 책자의 발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

7.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학부제와 관련하여 전국 32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현재 32개 대학 중에서 9개 대학이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시기를 살펴보면 1996년에 3개 대학, 1997년도에 3개 대학, 그리고 1998년도에 3개 대학이었고, 1999년에는 16개 대학이 더 참여 할 예정이다.

2) 문헌정보학과 32개 대학 중 17개(53%)대학이 인문과학대학, 9개(28%)대학이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었다.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9개 대학 중 5개 대학들이 인문대학에 속해 있고, 4개 대학은 사회대학에 속해있다. 학부의 명칭에 있어 특징있는 명칭들을 살펴보면, 문헌언론정보학부, 정보과학군, 정보과학부, 경상정보학부 등이 있다.

3) 교과과정의 전공필수와 선택의 지정여부에서는 5개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모두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4개 대학은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교과목의 개설과 관련하여 각 대학들은 2개 대학에서 학부공통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전공과목들은 전공기초과목, 핵심전공과목, 심화전공과목 등으로 나누고 있다.

4) 전공제도는 1개 대학의 경우 단일학과로 남아 있으며, 8개 대학은 복수 전공제를 택하고 있다. 졸업이수학점은 6개 대학이 140학점을, 2개 대학이 130학점을, 그리고 1개 대학에서 120학점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공이수학점은 5개 대학에서 36학점을, 2개 대학에서 35학점을, 그리고 2개 대학에서 각각 30학점과 39학점을 이수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5) 학부제 실시 후 학생들이 많이 택하는 교과목으로는 도서관 자동화, 인터넷 정보검색, 온라인 탐색, 문헌정보학 개론, 문헌정보학의 이해, 인터넷 응용, 정보관리의 이해 등으로 정보학과목을 많이 듣고 있다.

6) 학부제 이후 9개 대학에서 58개 과목이 폐지되었으며 평균 6.4과목이 폐지된 것이다. 9개 대학의 학부제 실시 이전과 실시이후의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2개 이상의 대학에서 없어진 과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서강독(4) 비도서자료(3) 한서강독(3) 자료조직(3) 문서관리(2) 독서지도(2) 서지학개론(2) 정보학 개론(2) 졸업논문(2) 프로그

래밍(2) 시스템 분석(2) 문헌정보학 특강(2) 등이다. 그외에 19개 과목이 폐지되었다. 또한 39개 교과목이 새로 개설되었으며, 이것은 학교별 평균 4.3개의 교과목이 증가된 것이다. 증가된 과목들을 유사과목으로 묶어 9개 대학에서 개설된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정보매체론(5) 문서관리(2) 정보처리론(2) 온라인 정보검색(5) 인터넷 정보검색(2) 컴퓨터 네트워크(2)등이다. 또한 21개과목이 신설되었다.

7) 학부제 교과과정표를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구본영(1996),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 3-50.

권기원(1978),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제도에 대한 고찰 - 전문학교에서 대학원 까지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도서관학 5 : 104-124.

김명옥(1997), "문헌정보학의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2) : 121-138.

김성수(1998), "학부제 관련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 연구", 도서관학논집 28 : 355-382.

김순원(1994), "문헌정보학교수의 질적요건 및 평가요소에 관한 소고", 도서관 49(1) : 45-62.

김정근 · 이수상(1997),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1):125-151.

남태우 · 정준민(1995), "정보사회를 대비한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8 : 193-245.

이수상(1998), 한국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 도서출판 한울.

이제환(1998), "전환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문헌정보학 회지, 28 : 1-40.

이종수(1994), 문헌정보학 분야의 과정별 교과과정 비교연구. 서울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식(1991),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분석과 모형개발," 국회도서관보 28(6) : 3-63.

최성진(1993),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해서," 창사 이춘희교수정년기념논총. 81-112.

최성진 · 윤병태 · 구본영(1985), "한국적 도서관학 교육과정 연구", 도서관학 12 : 269-327.

한국도서관학회 · 한국도서관협회(1979), "도서관학 교과과정 개혁을 위한 세미나 진행기록," 도서관학 6 : 3-36.

한복희(1984),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 : 교과과정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학 11 : 43-75.

Bunge, Charles. 1992. "The philosophies and objectives of graduate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6(1-2), 13-18.

Cochrane, Peter. 1995. "IT-a glimpse fo the future," Aslib Proceedings, 47(10), (October) : 221-228.

Davies, Robert. 1996.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in Europe: Perceptions and realities," Aslib Proceedings, 48(9), (September) : 215-220.

Hyams, Elspeth. 1996. " Professional futures-why the prospects are so rosy," Aslib Proceedings, 48(9), (September) : 204-208.

Jespersen, Sherry. 1993.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information and library staff in the UK," Aslib Proceedings, 45(2), (February) : 47-51.

Jeng, Ling, Hwey. 1993. "From cataloging to organization of information : a paradigm for the core curriculum," J. of Educ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34(2), (Spring) : 113-126.

Kinnell, Margaret. 1996. "Management development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Aslib Proceedings, 48(9), (September) : 209-214.

Sineath, Timothy. 1992. " Information science in the curriculum,"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6(1-2), 55-65.

Wittig, Glenn. 1992. "Making use of goals and objectives for internal program evaluation," J. of Educ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33(2), (Spring) : 129-140.